



[뉴스] 재계 총수들 코로나19 극복 메시지 단단한 새 안전망 짜야 02



Economy

코스피	1704.76 (+94.79)	코스닥	505.68 (+25.28)
금리 (미국 기준)	1.13 (0.00)	환율 (원/달러)	1229.90 (-19.70) (25일)



주식과 원화값이 이틀째 급등했다.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4.79포인트(5.89%) 오른 1704.76으로, 원·달러 환율은 19.7원 하락한 1229.9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한미 통화스와프 금주 계약… 내주 공급”

한은, 전체 600억 달러 중 1차서 상당규모 공급 계획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맞고환) 자금을 다음주 중 공급한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보는 25일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 중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주 중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9일 미 연준과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600억달러 규모로 체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두 배다. 기간은 최소 6개월(2020년 9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월 19일)이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상황때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달러 확보가 그만큼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한은이 밝힌 미 연준과의 협의 내용은 주로 공급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

1차 공급금액 ▲공급방식 ▲금리 등이 다.

이번 통화스와프의 전체 한도는 600억달러로 정해져 있지만 한꺼번에 600억달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공급하게 된다. 한은은 1차에서 상당 규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했던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도가 300억달러였고 5차례 입찰을 실시해 총 164억달러를 공급했다.

유 부총재보는 “2008년의 경우 1차에서 40억달러를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1차에서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현재로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문제는 공포였어” 부양책 악발 ‘급등’

대규모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美 다우지수 11% 이상 폭등 국내 증시도 5%대 상승 마감 리스크 남아 보수적 접근 의견



새벽에 날아든 미 증시 폭등 소식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틀째 급등세를 나타냈다. 24일(현지시간) 미 증시는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다.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12.98포인트(11.37%) 오른 2만704.91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가 11% 이상 치솟은 것은 1933년 이후 처음이다. 87년만에 일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 다우지수 120년 역사상 역대 5번째로 큰 상승 폭이었다. 이전의 최고 상승을 기록했던 날은 15% 이상 상승했던 1933년 3월 15일이었다.

한국 증시도 크게 올랐다. 연이어 내놓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3면)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4.79포인트(5.89%) 상승한 1704.76에 장을 마쳤다. 개인이 4519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3331억원, 기관은 1053억원을 순매도했다.

모든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증권(14.56%)과 운수장비(12.51%)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 증권 업종의 폭등은 전날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하는 등의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 단 5곳만 하락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3.62%)와 SK하이닉스(7.37%)도 크게 뛰었다.

코스닥 지수도 5%대 오름세를 보였다. 개인 매수 우위 속에 전일보다 25.28포인트(5.26%) 상승한 505.68에 거래를 끝냈다.

전문가들은 증시 급락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데 입을 모으면서도 여

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반응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코로나19가 가져온 실물경제 타격을 반영한 매크로 지표는 추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지수의 반등은 각국의 부양정책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글로벌 경제 침체가 가능성 등 남아있는 리스크가 아직 많다”고 말했다.

간밤 24일(현지시간)은 미국 뉴욕증시 역사상 손꼽을 날로 기록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12.98포인트(11.37%) 폭등한 2만704.91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11% 이상 치솟은 것은 지난 1933년 이후 87년 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9.38%)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8.12% 뛰어 올랐다.

한편 원화값도 이틀째 급등했다. 폭등한 뉴욕증시에 반영된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원·달러 환율에도 반영됐다. 무려 20원 가까이 하락(원화값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7원 내린 122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송태하 기자 alvin@metroseoul.co.kr



긴 기다림

소상공인들이 25일 오전 대구 북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발급 및 상담 등을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 30만명 규모로 확대”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전업종 6월까지 한시적 대폭 상향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4000억원 더 늘려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위해 외화 LCR(유동성 커버리지) 규제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전업종에 대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최대 30만명까지 지원하도록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4000억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교육, 도소매,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

자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 완화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純)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홍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